

#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확 줄었다

### 지방선거 D-90 기준

### 4년 전보다 68%나 급감

### 사전 선거운동 기준변경 영향

광주·전남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가 확 줄었다. 지방선거 90일전 기준으로 제7회(2018년)와 제6회(2014년) 때를 비교한 결과, 무려 68.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지난 15일 현재 선거운동을 통한 선거법 위반 조치는 총 66건이었다. 광주는 11건으로 고발 5건, 수사외 1건, 경고 5건이었다. 전남은 고발 6건, 경고 49 건 등 모두 55건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제6회)때 같은 시기 광주·전남은 고발 13건, 수사외 8건, 경고 190건 등 모두 209건(광주 37, 전남 172)이었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집회·모임을 이용한 선거 운동 등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불법 행위가 크게 줄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123건에서 66건으로 68.4% 감소했고, 공무원 선거 개입이 11건에서 4건(△63.6%), 시설물 관련이 7건에서 4건(△42.8%), 인쇄물 관련이 46건에서 23건(△50%), 집회·모임 이용이 2건에서 0건으로 줄었다. 허위사실 공표만 3건에서 5건으로 유일하게 늘었다.

선관위는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전 선거운동 판단 기준이 변경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당시 판례는 입후보 예정자의 명시적인 선거 운동 목적이 없는 대민 접촉, 인지도 제고 활동 등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 6건에서 1건으로 줄어든 수사외 조치는 중앙선거위원의 단속 기조 변경에 따라 처리요건을 엄격히 운용, 기소율이 낮을

### ■ 지방선거 D-90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행위 조치 현황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지고, 선거법 준수에 대한 유권자 의지가 반영된 점도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위법행위 발생 우려는 커진다”며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 불법선거여론조사, 당내경선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김 가공공장 ‘해인’ 등 4개 기업 해남에 230억 투자

### 전남도와 협약 체결

유한회사 해인, 온드립푸드(주) 등 4개 기업이 해남에 230억원을 투자한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20일 해남군청에서 해인 등 4개 기업과 모두 23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했다.

해남·진도·목포에서 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해인은 해남읍 용정리 1만3694㎡에 100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구운 김과 조미 김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이에 따른 일자리가 80개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에서 10여년간 축산물자판매를 운영한 신진축산유류는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9027㎡에 50억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돼지고기 가공공장을 세운다. 생산 제품은 농협,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에 납품할 계획이며, 50여명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농산물 유통기업 온드립푸드(주) 땅끝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최성진 해남군수 권한대행과 최연식 해인 대표 등 4개 기업 대표가 20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총 23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해남 식품특화단지 2965㎡에 45억원을 들여 2020년말까지 군고구마 가공공장을 짓고, 해남에서 농·농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는 땅끝생도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5248㎡에 35억원을 투자해 고구마 앞차 및 말랭이 가공공장을 건립한다. 이들 기

업에서는 각각 3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는 전체 분양 대상 8만9427㎡ 가운데 5만3586㎡가 분양돼 60%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전남 서부해역 맞는 굴 양식법 새로 개발

### 수평걸이 방법 생산성 증대

전남 서부해역 갯벌에 적합한 굴 양식법이 새로 개발됐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 서부해역의 넓은 갯벌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품목 개발을 위해 3년 연구 끝에 생산성이 높은 굴 양식방법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갯벌 굴 양식은 투석식 방법을

활용했다. 갯벌에 일정하게 돌을 배열해 자연적으로 부착시켜 성장한 굴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이 매우 떨어졌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 매몰돼 굴 부착면적이 줄어들고, 시설물의 보수·보완이 힘들며 작업 시 안전사고 문제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갯벌에 말뚝을 설치하고, 종자가 부착된 수하연(굴 종자가 붙은 가리비패각이 15~20

개 연결된 것)를 수평으로 걸어 양식하는 방법을 고안, 다년간 연구 끝에 실용화에 성공했다. 수평걸이 양식방법은 인공종자를 부착해 시설함에 따라 계획적 양식이 가능하고, 기존 투석식에 비해 생산성이 30배 이상 높다. 수확 작업도 투석식에 비해 매우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부해역 전체에 빠르게 전파돼 산업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험 양식한 굴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갯벌굴과 연승수하식 굴의 체성분을 계절별로 조사한 결과, 일반 성분에는 차이가 없었다. /박정욱기자 jwpark@

## 6·13 선거 현상

### 구청장·시장·군수 후보

### 김병내 “푸른길 공원 6.1km 연장”



김병내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현재 푸른길 공원의 구간을 현재보다 6.1km 연장하고 각 구간을 정마공원, 사색공원, 독서실 공원 등의 테마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더 푸른길’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품 도시공원으로 인정받은 푸른길 공원을 확대해 ‘더 걷고 싶고 더 찾고 싶은 푸른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현재 동성고~남광주역~광주역까지 모두 8.1km로 조성된 푸른길에 양립~사직~방림~봉선~효덕을 잇는 6.1km 구간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 조성철 “5·18 헌법 전문 수록 환영”



조성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20일 “청와대가 이날 내놓은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수록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며 크게 환영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주의의 보편적 이념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온전히 헌법 전문에 담기게 된다면 광주시민 모두가 기뻐할 일”이라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5월 정신을 온전히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며 정부에 이를 촉구한 바 있다.

### 장수훈 동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장수훈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은 20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청년구청장으로서 도전하는 동구를 만들겠다”며 동구청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2015세계청년축제추진단을 맡아 성공적 축제를 만드는 등 ‘광주청년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강 위원장은 “광주창업지원네트워크 사무처장과 토크 콘서트 ‘순소’를 기획하며 광주 청년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광주정신의 뿌리는 공동체 정신이 있지만 어느 지역보다 폐쇄적이며 비민주적 정치문화로 전락했다”며 “정치를 통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광주정치와 동구에 봄을 불어오겠다”고 강조했다.

### 문상필 “북구를 민주주의 교육장 만들 것”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0일 “북구를 거대한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꾸밀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북구는 5·18의 시발점인 전남대학교와 광주역, 국립묘지가 있다”면서 “광주역에 광주근현대사박물관과 민주주의 체험관을 만든다면 광주학생독립운동부터 시작된 광주의 민주주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고, 여기에 광주교도소 1987기념관과 국립묘지와 연계해 북구를 거대한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꾸밀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광주시 지역택시노조 문인 후보 지지



광주시 지역택시노동조합(의장 최진영)은 20일 북구 조합 사무실에서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광주 북구청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인 예비후보를 조합 차원에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인 북구청장 예비후보 지지선언에는 광주지역 택시노조 최진영 의장을 비롯 47개 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 등은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북구 발전의 호기를 맞은 이때, 북구의 산적인 헌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불독자 같은 추진력을 겸비한 준비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성수 “5·18 헌법 수록 역사적 큰 의미”



장성수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개헌안과 관련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독재권력에 맞선 광주시민들의 위대한 저항이었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5·18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이은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단지 보수와 진보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헌법” 설문 결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5·18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임택 동구청장 예비후보 자서전 진솔한 삶의 의미 담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후보자들이 각종 출판기념회를 통해 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의 저서 유권자들에게 진정된 감동을 안겨 주고 있다. 대부분 정치인의 책이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데 그치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임 후보의 책은 ‘삶의 의미’가 담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임 후보는 최근 동구 KT 빌딩에서 자신의 책 ‘이웃이 있는 마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책에는 임 후보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민주화운동에 앞장 선 대학시절,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던 사회초년생, 구의원과 시의원으로서 활동했던 발자취가 담담하게 소개됐다. 특히 임 후보가 오랜



민주운동 탓에 생활고를 겪다 중국음식 배달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 등도 진솔하게 담겨 있다.

동구지역 한 유권자는 “대부분 정치인이 ‘자신들이 잘났다’는 내용의 책을 경쟁해서 내놓는데 임 후보의 책에는 인간미가 담겨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임 후보는 “살아 온 과정을 가감 없이 기록했고, 이를 통해 동구 지역민과 함께 호흡했던 한 젊은이가 동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